

# 깨끗해서 좋아요 !

글: 이현진  
그림: 이현진







# 습관과 버릇

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.

그런데 할아버지는 밥을 먹고 나서 입을 헹구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.

옛날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았는데, 할아버지는 이도 잘 닦지 않았지요.

## 02

할머니는 또 어쩔가 하면 손을 닦지 않는 버릇이 있었어요.





부부는 만나면 서로 흉을 보았어요.

할아버지가 "할멈 손은 까마귀 같아요." 하면 할머니는

"아이고 영감 이는 어찌나 더러운지 누렁이 색이에요. "

라고 맞받아쳤지요.

# 04

그러던 어느 날, 할머니는 냇가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.

그날따라 빨래가 너무 많았어요.

한참 동안 냇가에서 손으로 빨래를 비볐더니,

모두 마치고 나자 어느새 할머니 손이 깨끗해졌어요.

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.





"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깨끗해  
지다니! 곱기도 하구나!"

할머니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
'그동안 내가 내 손이 더러운 것도 모르고 영감만 비난했다니,  
부끄럽네.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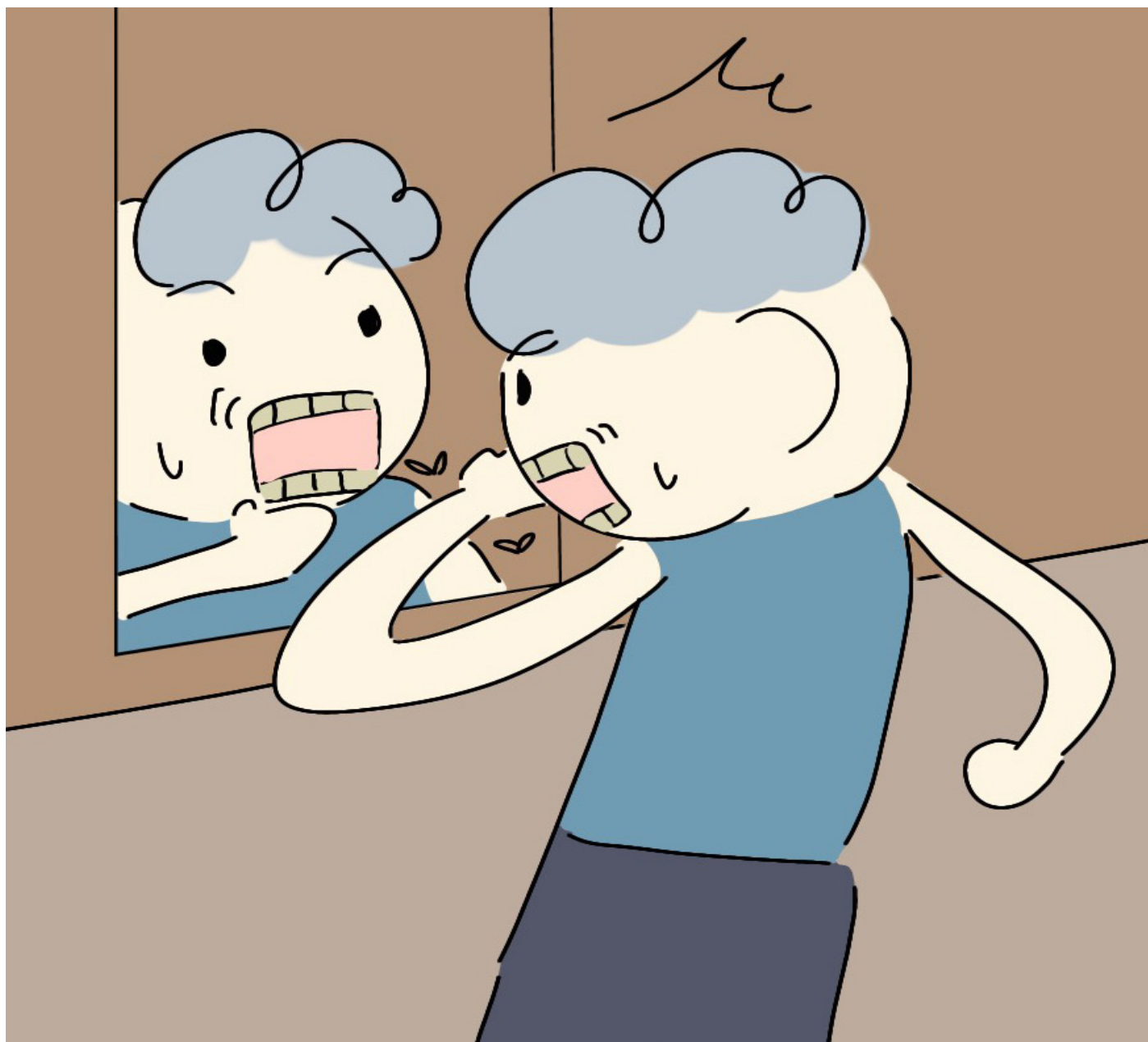
# 06

## 돌아보는 시간

한편 집에 있던 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.

그때 갑자기 벌레가 할아버지의 입 쪽으로 날아와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놀란 나머지 "아이고!"

외치면서 입을 벌렸지요. 그때 할아버지의 누런 이가 거울에 비쳤어요.





'이 누런 이를 한 사람이 나라는 말이지?'



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를 보고 한번 더 놀랐어요.

놀란 할아버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이를 소금으로 한참 동안 깨끗이 닦았어요.

# 08

이는 점점 원래대로 희어졌어요. 할아버지는 뿌듯했어요.

'이만하면 됐지? 아, 이제야 내가 사람 같구먼. '





## 반성과 칭찬

할머니가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할아버지는 마당까지 할머니를 맞으러 나와 자랑스럽게 말했지요.

"할멈 이제 오는 거요? 내 이를 좀 보구려."

할아버지는 흰 이를 내보이며 말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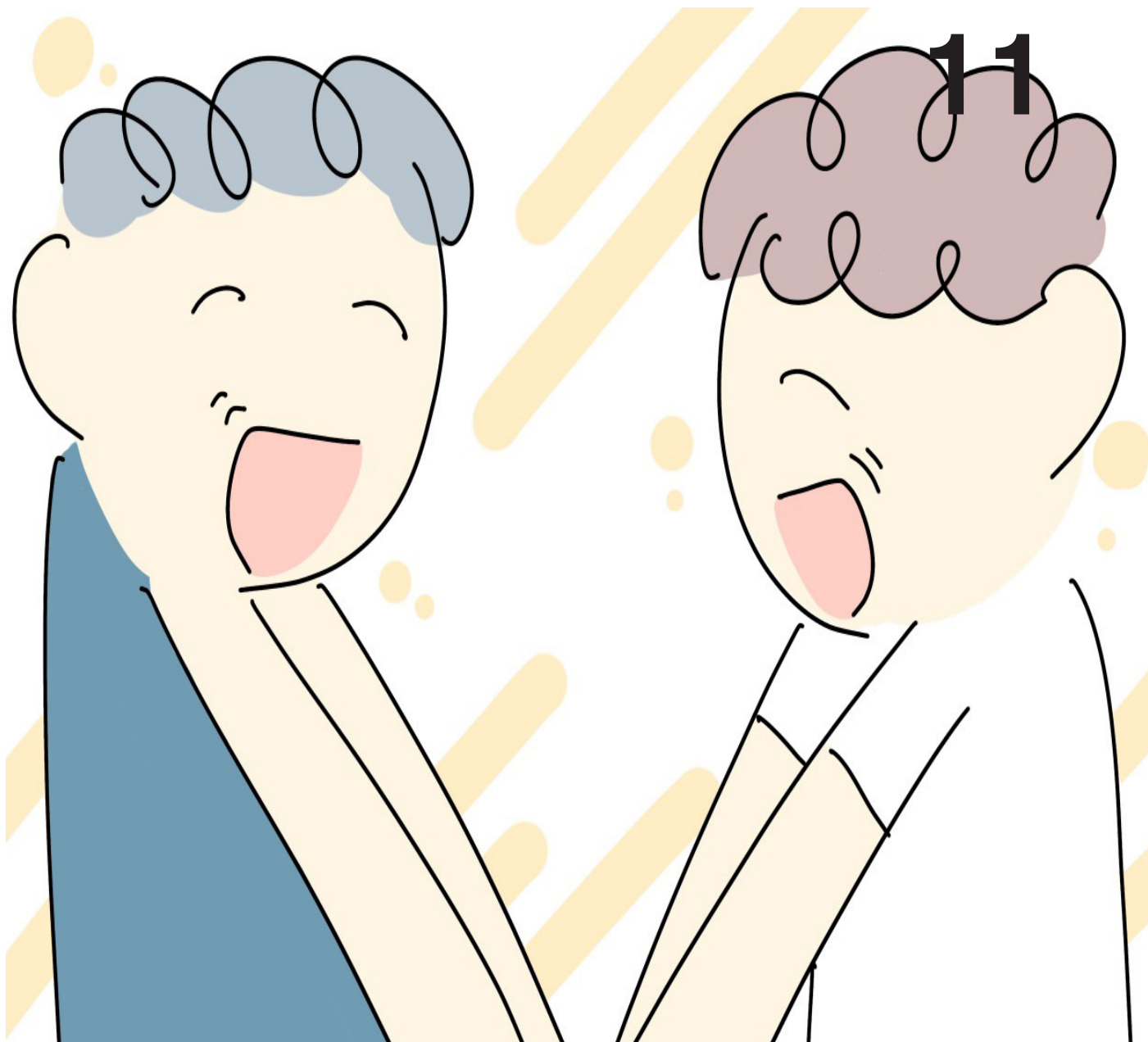
# 10

할머니도 웃으면서 말했어요.

"저는 빨래 다녀왔지요. 제 손도 한번 보세요."

할머니도 자랑스럽게 손을 내보이며 말했어요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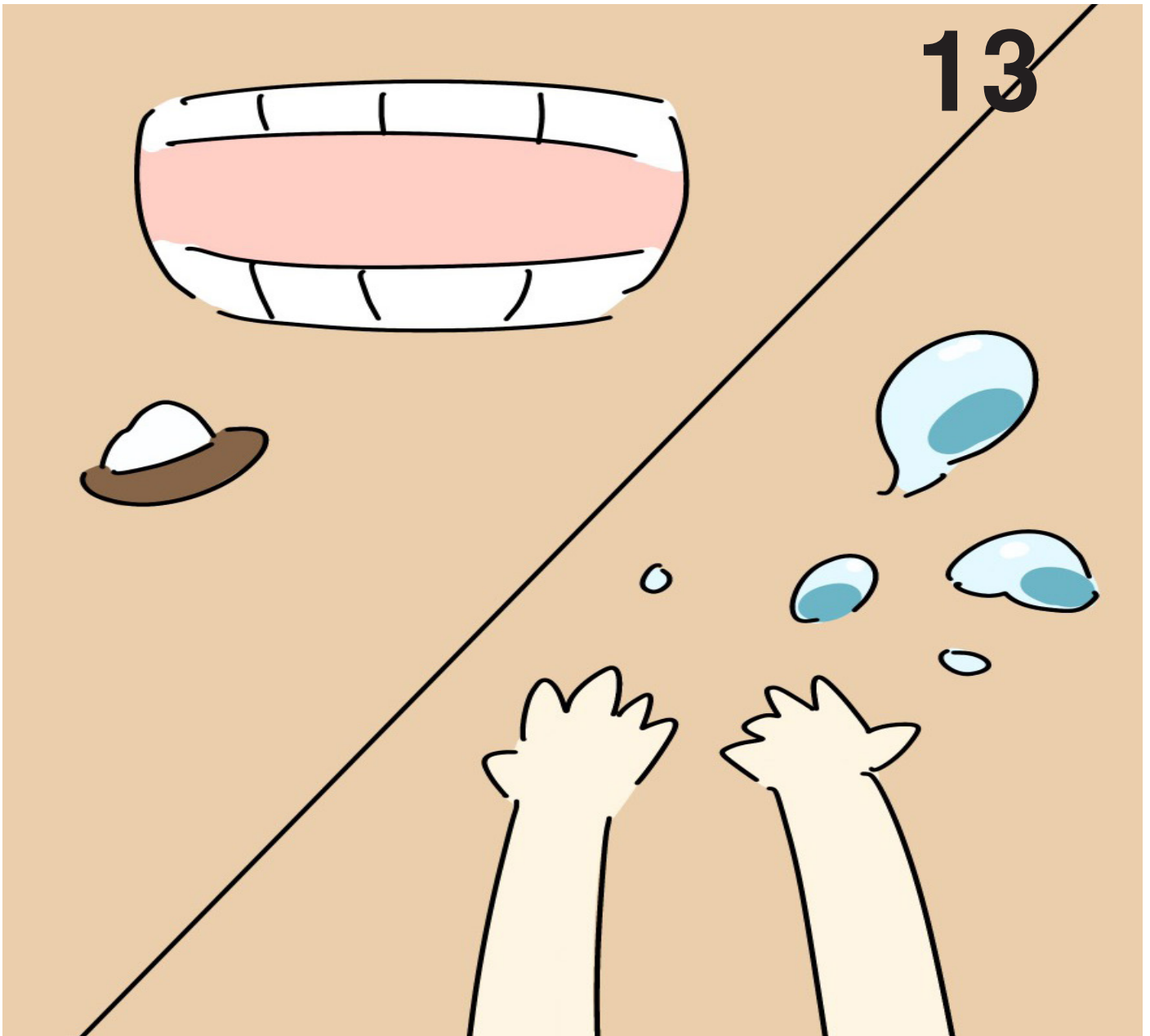
부부는 서로 말했어요.  
"정말 깨끗하구려!"



# 12

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의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 
비난했지만, 정작 자신의 지저분한 모습은 깨닫지 못했어요.  
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치자,  
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수 있었지요.





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 
먼저 보는 것이 중요해요.

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도  
매우 중요하답니다.